

고린도후서 4장

이러하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러하므로'란 단어는 항상 앞에서 언급했던 것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맥기(McGee)박사는 말하기를, '이러하므로'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무슨 이유로?'를 질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러하므로' 했는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율법으로가 아니라 은혜의 언약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만일 율법의 언약이 영광스러운 것이었다면 이 새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8절).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니다.

모세의 율법과 대조해 볼 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근거로 모세의 율법을 세우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밤에 예수님이 떡과 잔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새로운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유월절 밤에 예수께서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길, 이 잔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가져왔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위해 동물을 잡아 그 피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새 언약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빈약합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매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좋은 날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좋지 않은 날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일이 너무나 잘 되어가서 마치 공중에 붕 떠있는 것 같은 날도 있는 반면에, 어떤 날은 모든 일이 다 잘 못되어 가는 것 같아 기분이 언짢은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근거를 둔다면, 그것은 매우 빈약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견고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나의 행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견고하고 지속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선행과, 나의 신실함과, 나의 의로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으니, **공홀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이 바울에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인기 있는 직분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바울을 그들의 원수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유대교의 적이요 배반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생명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과, 죽음에 직면했고 또 항상 핍박에 직면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공홀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직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2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궤눌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성경 말씀의 의미를 곡해하여 내가 말하기 원하는 것을 나타내도록 성경말씀을 곡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말씀을 엑스지시스(exegesis)하는 대신에 에이서지시스(eisegesis)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엑스지시스(exegesis)는 본문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고, 에이서지시스(eisegesis)는 본문에다 진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자기가 받아들인 입장에 맞추기 위하여 왜곡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성경 강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축복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들을 도와 그들이 그러한 근사한 차들을 타고 다닐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치스런 생활 방식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속옷은 잊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는 성경말씀에 와서, 예수님은 디자이너 의복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디자이너 의복을 입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도 디자이너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성경 말씀에 유다가 돈주머니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는 우리들 중에서 회계의 일을 맡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그가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너무나 많은 돈을 갖고 있었으므로 유다가 얼마를 훔쳐도 전혀 표시가 안 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고 부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어떤 교리적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억지로 뜻을 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진실하게 다루며, 교활하게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꾸미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꾸미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경고하기를 (야고보서 3: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성경 말씀을 강해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지어집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말씀 속에 있지 않는 것을 끌어내려고 교묘하게 말씀을 꼬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믿는 것입니다. 숨김없는 명백한 진리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숨겨진 뜻 뒤에 숨겨 놓고 교묘하고도 교활하게 사용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비스러운 해석을 찾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성경 말씀은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이것에 대한 통찰력을 나에게 주셨고, 아무도 이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알기 쉬운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어떤 숨겨진 동기나 숨겨진 것들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수 년 전 내가 사역하던 교회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만나게 되면,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그녀는 오후에 나에게 전화를 하여 묻기를, 오늘 아침에 나에게 좋은 아침! 이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로 무슨 의미냐고 물어 오곤 했습니다. 말 그대로 좋은 아침이라는 뜻이었는데 그녀는 어떤 암호나 은밀한 뜻이 담긴 양 항상 그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 나는 내가 뜻하는 것을 말하고 또 내가 말하는 그대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의미하셨습니다. 아주 알기 쉬운 의미가 보통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꾸미지 않으며, 성경말씀을 혼잡케 하지도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음을 압니다. 언젠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 해명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를 지나치게 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답(Every Man an Answer)”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많은 질문들이, 어떤 주제에 관하여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은, 추측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명확한 성경적 해답이 없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말하기를, 그런 것을 다룬 성경말씀은 없다고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다루는 성경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에 대한 해석은 이러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것은 우리의 견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우리가 보는 견해로는 이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추측임을 꼭 말합니다. 추측은 추측일 뿐입니다. 한 사람의 추측은 다른 사람의 추측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3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우리는 교활한 말이나 파악하기 어려운 말을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만일 복음이 가려졌거나 숨겨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4 그 중에 이 세상 신(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바울은 복음을 말할 때 매우 솔직하고도 명확하게 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사단을 이 세상의 신 또는 이 시대의 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 하셔서 그를 이 땅에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길, 땅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잘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땅을 즐기고, 돌보라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는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사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 즉 이 세상 체제의 신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람이 이 땅을 사단에게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도록 권한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 자신을 종으로 주었습니다. 아담을 사단의 종이 되었고, 사단은 이 세상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두 번씩이나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고, 사람이 사단에게 그것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주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모시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주고는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단이 그것들이 자기 것이고 자기 원하는 자에게 그것들을 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들은 너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이 사람에게 의해 사단에게 넘겨졌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속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구속의 댓가는 주님의 죽음, 즉 불의를 위한 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십자가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을 때, 또 제자들이 주님께서 진실로 메시아이심을 처음으로 알았을 때, 예수께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자신을 그것에서 면하게 하소서(문자적으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셨습니다.

사단의 제의는 십자가로 가지 말고 자신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값을 치루셨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통한 대속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 소유로 차지하지 않았습시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시다. 인간은 사단에 의해 지금 다스려지고 있고,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이 섬기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날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이 땅 위에 주들 중에 주님 되시고 왕들 중에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5장에서 그날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요한이 천국에 있을 때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요한이 말하기를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음으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를 보라 그가 책을 가져다 인을 떼리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돌아다보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날에 이 땅의 권리증서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반환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므로 하늘에서 모든 기쁨의 찬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인들이 떼어질 때에, 이 땅에 있는 불의와 죄의 공해로부터 이 땅을 청결케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사단이 그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셨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되라. 그러나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변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이 그들의 마음에 진리를 너무나 비틀어 놓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사단의 힘에 의해 지배되고 또 그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빼고 이 세상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말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만 내놓으면 다이내마이트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이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구경기에서 다저스 팀이 연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또는 앤젤스 팀이 갖게 될 기회에 대하여 그들은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다른 것들에 대하여 아주 친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만 나오면 불을 붙인 것처럼 이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진실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지배와 사단의 힘 아래 있습니다. 사단이 그들을 잡고 있으며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 우리는 사단의 힘을 묶어야만 합니다.

이것에 관하여 예수께서,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이 진리를 왜곡케 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왜곡시키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야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단이 행한 결과로 그들의 마음에 진리를 곡해하게하는 사단의 일을 묶는 기도를 통하여합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창조에 대해, 죄에 대해, 죄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성경말씀과 예언들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계속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죄는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또 합리화 할 수도 없습니다. 죄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 지를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사단에 의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격태세를 갖추어야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사단의 일을 묶어야합니다. 사단의 일이 묶임을 당할 때 그들은 맑은 정신으로 성경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들이 영접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바보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들의 마음은 혼미하게 되어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릇된 행동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종종 옳고 그릇된 행동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의 죄에 묶여있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하여 그의 마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는 전혀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죄의 힘에 의해 잡혀 있습니다. 그는 옳고 그릇된 행동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끊기를 원하는지요?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들을 상하게 하고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바라고, 소원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릇된 행동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두움의 세력에 의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말하기를, 우리는 옳고 그릇된 행동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한 자유인가요? 주님의 지배 아래로 우리의 삶을 내맡기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는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에 의해 지배되어집니다. 나는 기꺼이 주님께 내맡겼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한 시점에서 나는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묶고 있었던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위해 나의 삶을 맡기기로 작정한 그 날, 그 때 한번 나는 나의 자유 선택권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당신은 사단에게 묶여서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의 뜻을 행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서 그의 종이 되어 그분의 뜻을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당신이 한쪽이 아니면 다른 쪽일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 아니라면, 바울이 말했듯이, 당신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육신과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단의 세력에 묶여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든지, 아니면 당신의 삶을 복종시켜, 주님을 당신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든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사단에 의해서 가려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은 숨겨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암흑 속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아니하는 한 그들은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는 어두움의 세력에서부터 해방되었고, 이 세상의 신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굉장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것이 바로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면 만족하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빌립에게, ‘만일 네가 나를 보았다면 네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도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들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저지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님께 날마다 조금씩 더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3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한 것을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회복시켜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들은 어둠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5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전부입니다. 우리는 너희의 종들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섬기려고 하고,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위해 너희를 섬기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너희를 지배하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이방인들은 권력을 행사하기를 좋아하는데, 너희들 중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만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을 위한 너희의 종들입니다.

6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처럼 어둠에 더 이상 있지 않으니 이 얼마나 축복 받은 자들인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에 합당하게 여기신 것으로 인해 우리는 매일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은 어둠에 싸여있고, 완전히 타락했지만, 여기 우리는 구속함을 얻고, 깨끗하여 졌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기 때문입니다.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복음의 풍성함, 이 영생의 보배, 이 얼마나 귀한 보배인가!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절대적으로 귀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당신의 혼은 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보배,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영광, 구원!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습니다! 아마 당신은 하나님께서 금기에 넣으셨다면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즉 당신의 마음과 나의 마음에 있는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놀라운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이 소망이 이 질그릇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질그릇과 같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릇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릇이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큰 위험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에 대해 계속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활하게, 거짓으로 다루지 말고 오직 정직하게 다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을 곡해하여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며, 또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끌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고, 단지 종,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당신들의 종일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에 담으신 이 영광스러운 보배를 사람들에게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단지 흙으로 된 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질그릇에 아주 값비싼 향기가 담겼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향기를 자랑하지 그 그릇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 얼마나 향기로운 그릇인가!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을 높이고 추종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할 때마다 항상 그들 자신이 영웅이 됩니다. 어떤 병든 사람이 오랄 로버츠(Oral Roberts)에게 가서 기도를 받았고, 또 베니 힌(Bennie Henn)에게 가서도 기도를 받았었지만 더 상태가 나빠졌었는데, 나에게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노라.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합니다. 글쎄, 그것은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오랄(Oral) 이나 베니(Bennie) 또는 누구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질그릇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깨진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깨진 질그릇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성경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일할 때에,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또 그가 원하는 어떤 종류의 그릇이든지 만들 권세를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흙 항아리는 쓰레기를 담는 데 사용되어지기도 했고, 어떤 것은 물을 담아 집으로 가져오는데 사용하는 항아리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인들은 이 항아리를 우물에 가서 물을 담아 집으로 가져오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집에서는 요리하는데 사용되는 항아리도 있고, 설거지 용기나, 물을 마시는 그릇으로 사용되는 용기도 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물을 담아 냉장고에 저장하려고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마실 때에 플라스틱 맛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으익! 나는 플라스틱 냄새가 나는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맛이 없는 청정수를 좋아합니다. 나는 용기 냄새가 나는 물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보배를 담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보배를 나누고, 부을 때에, 사람들이 그 그릇을 맛보지 않게 하고, 또 우리가 맛이 변질되지 않은 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순전한 기쁨을 받게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부을 때에,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변질 시키거나 그릇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이없는 일을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중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 것은, 그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사역에 관하여, 결코 쉬운 직업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8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11장에서 바울은 그가 경험했던 어려움들을 열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강한 삼십 아홉 번의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하기 위하여 겪었던, 사면에서 고난과, 동쪽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등을 나눌 것입니다.

사방에서 오는 고난! 그러나 **싸이지 아니하며**, 그러나 괴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많은 고난이 있었으나, 주께서 보좌위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헌팅턴 비치(Huntington Beach) 시에 사는 귀한 권면의 은사를 받은 아주 사랑스럽고도 상냥한 할머니가 한 분계셨습니다. 버더(Byrd) 여사는 90세의 연세로 경건하면서도 덕망이 높은 성녀이셨습니다. 그녀의 주제는 항상 '하나님께서 보좌위에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 번 그녀를 찾아가 의논을 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말하기를, '찰스(Charles), 하나님께서 보좌위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그 보좌를 떠나시지를 앓았다' 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집에서 나올 때는,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무질서하고 혼란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잠시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할 지 모릅니다. 때로 삶은 매우 당혹스럽고, 아주 혼돈되고, 때때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갈파를 못 잡고 당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갈 길을 예비하시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9 핍박을 받아도**, 오! 바울은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핍박을 볼 수 있습니다.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바울은 사람들에게 의해 버림받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말하기를, 내가 네로(Nero) 앞에서 처음 변호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거꾸러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내던져져도,

망하지 아니하고, **10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짚어짐은**,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돌로 맞은 흉터를 갖고 있었고, 매질로 인한 채찍의 흉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몸 전체에 흉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흔적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것들이라!

그래서 항상 주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랬습니다! 바울은 항상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싶어 하기까지 그들을 화나게 한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여러 번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개종했던 다메섹에서 곧 그는 도망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광주리에 몸을 숨겨 성벽에서 달아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문 앞에서

그가 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마지막 무렵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그는 로마인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노라고 그들 사이에 맹세한 사십 명의 과격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항상 죽음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11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님을 위하여 항상 죽음에 직면하노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금 생명과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당면하지만, 그 목적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서신에서(빌립보서 1:20)말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노라. 나는 단지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존귀하게 되실 수 있다면, 멋진 일입니다! 내가 살아 있으므로 주님이 존귀하게 되실 수 있다면, 그것도 멋진 일입니다! 단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항상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중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들의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인해 화가 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죽음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함께 동거하며 살고 있었던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들은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그들의 여자 친구들이 이사를 나갔다고 하여 화가 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은 종종 죽음의 위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12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는 죽음에 직면하지만, 그것이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스러운 영생의 진리를 가져다줍니다.

13 기록한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이것은 바울이 시편 16편에 있는 것을 인용한 것으로 다음의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이 시편 16편을 마음에 두고 쓴 것 같습니다.

시편 16편을 펴서 보시면 어떻게 바울이 반영하고 있는 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풍부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구약 성경 말씀의 이해를 근거로 한 것이 많음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음을 직면했을 때나 죽음의 위협을 받았을 때 이 시편 16편이 종종 그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편은 여러 다른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시편이 너무나 좋은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문제에 당면하든 이 시편은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위로와 위안을 찾으려고 시편을 자주 읽었으리라 봅니다.

시편 기자는,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때 다윗도 죽음을 당면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살아 있을 동안 다윗은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편 16:1-11)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것은 다른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찌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없이 바울의 생각에는 시편 116편에 다윗이 말한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는 구절을 결부시켰을 것입니다. (3-11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바울은 사방에서 고난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여기서 바울이 이 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것이 죽음과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고, 바울은 그것과 관련시켰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바울은 다윗이 말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기록한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바울도,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고 했습니다. **14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압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15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내가 겪은 이 모든 것들, 모든 환난과 핍박과 등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가 많은 사람으로 감사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너희가 이 풍성한 은혜로 인해 감사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며, 굴복하지도 않고, 계속 갈 것입니다.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몸은 부서지고 못 쓰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겉 사람은 썩어진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흔적,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행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17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지극히 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영광의 비중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5장 11-12절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므로 이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족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비교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즐거움과 영원한 결과 그리고 잠시 받는 고난과 영원한 영광을 비교하고, 우리는 영원을 의식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잠시 있는 이 물질 만능의 세상에 휘말리어 산다면, 이것은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것이고, 우리를 쉽게 낙담시킬 것이며, 또한 쉽게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당면할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전진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목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역경을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기에 이러한 핍박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영원을 바라보았었기에 (히브리서 11:24-29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볼 수 있었음입니다. 모세는 영원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는 25년 내지는 30년간 애굽의 왕으로 모든 명예와 부와 등등을 즐기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지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막에서 방황하며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지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기에 모든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이것이 인내의 비밀입니다.

18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들은 물질적인 영역의 것들입니다.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인 영적 세계를 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끝까지 해낼 사람이고, 끝까지 인내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영적인 영역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기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것이 실재 세상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실재 세상이 아닙니다. 가짜 사람들로 꼭 찬 가짜 세상입니다. 실재 세상은 영적 세상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13절) 말하기를

우리는 이곳에서 단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실 터가 있는 한 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짧은 기간동안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요 라고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할 집은 하늘 저 편 어디엔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잠시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의 왕국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있을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영원한 것들에 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들에서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나 일시적인 상을 갖다 줄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6: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것은 너희의 보물이 있는 그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즉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거기가 바로 영원한 것들에 나의 가치를 둘 곳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내다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잡고 혼란시키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몰두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영원한 것들과 당신에게 맞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과, 영원한 것들과, 당신의 왕국과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에 고정하도록 도우소서. 우리의 걸 사람은 후패하고, 이 세상 것들은 사라지고,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도록 도우소서.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 당신의 왕국 안으로 영광스럽고도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